

시흥소방서,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여

기사입력시간 : 2022/11/24 [14:30:00]

정현희 기자



[FPN 정현희 기자] = 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지난 23일 시흥시체육관에서 시흥시 주관 '2022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 훈련은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통합 대응 역량과 협력체계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전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훈련이다.

올해는 풍수해 재난 발생을 대비해 지하 주차장 침수에 따른 다수사상자 발생을 가정해 시행됐다. 소방서와 시흥시, 시흥경찰서, 군부대 등 14개 기관 소속 장비 28대와 인력 200여 명이 동원됐다.



훈련은 관계 기관별 역할에 따라 상황 발생 · 접수 · 전파, 초기 대응, 비상 대응, 수습, 복구 순으로 대응 매뉴얼에 기반해 실전처럼 진행됐다.

지하 주차장 침수에 따라 119구조대원들은 구조 보트를 활용해 인명 수색과 구조활동을 진행했다. 구조된 요구조자는 119구급대와 보건소가 협력해 응급처치했다. 119안전센터 대원들은 동력소방펌프와 양수기를 활용해 배수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최근 심폐소생술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시흥여성의용소방대의 심폐소생술 시연과 군부대 장갑차를 활용해 119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시연이 눈길을 끌었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한선 서장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청과 소방, 군, 경찰 등 관계 기관 간 공조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협력을 통해 안전한 시흥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